헨리 정이 후손에게 주는 교훈

권영선
재정경제원 사무관/시라큐스대학 유학중

도서관의 침침한 형광등 빛 아래 손길이 자주 미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는 한국사 난을 기웃거리다가 우연히 눈에 띈 한 권의 책이 있었다. *The Case of Korea* 부제는 "A Collection of Evidence on the Japanese Domination of Korea, and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이었다. 놀라운 것은 발간연도가 1921년이라는 것과 저자가 한국인인 헨리 정(Henry Chung, A. M., Ph.D.)이라는 점이었다.

이 책을 통하여 저자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저자는 이 책 외에 *The Orient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와 Korean Treaties* 등 다른 책도 썼고, 이 책은 워싱턴D.C.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하나, 책의 표지에 쓰여 있는 저자에 대한 표현 "Member of Korean Commission to America and Europe"에서 저자가 '미주유럽지역 한국위원회'(독립협회의 미주유럽지부가 아닌가 생각된다)의 구성원이었을 것이란 추측을 할 수 있었다.

더욱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한 것은 책의 맨 첫 장에 쓰여 있는 "한국이 독립을 되찾을 수도 있었던 1919년 국민운동에서 순교한 용감한 분들의 영전에 바침(원문 : To the memory of those BRAVE MEN AND WOMEN who suffered martyrdom in the national movement of 1919 that Korea might have restored independence this volume is respectfully inscribed)" 이란 증정의 글이었다.

발전경제학 시간에 발표할 '식민지배와 경제발전과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조우한 한 권의 책이었으나 나는 70여년이 넘는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0년이 넘게 지속된 역사의 암흑기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독립에 대한 확신을 지닌 독립운동가 헨리 정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에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시기에 독립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데 대한 감사와 이러한 책이 있었다는 자부심으로 한동안 가슴뭉클한 감동으로 이 증정의 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 책에는 또 특이하게도 1884년 6월 4일 선포된 「한미간 평화와 선린 그리고 통상과 항해에 관한 조약」의 유효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시민의 관심을 촉구한 당시 미주리州 상원의원인 스펜서(Selden P. Spencer)의 서문이 책머리에 붙어 있었다.

스펜서 상원의원은 우선, 동 조약에는 어느 한 국가가 타세력에 의하여 핍박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다른 한 국가는 중재(good offices)를 통하여 평화로운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아울러 그는 한국 국민과 황제는 동 조약을 파기하지도 수정하지도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미국 국민에게 이 책 읽기를 권하고 있다.

저자인 헨리 정은 이 책에서 당시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 논리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한국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가 아닌 1921년으로 돌아가 당시 일제의 식민지배 논리와 그에 대한 반박논리를 알 수 있는 귀한 책이었다.

이 책은 총 1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제지배의 부당성을 증명하기 위

하여 그 당시 발간된 자료를 발췌·인용하고 있으며, 3·1 독립선언서 등의 영역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서면기록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젊었을 때 사진,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사진 등 10여 장의 사진도 아울러 실려 있다. 또한 7개의 부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명성황후 시해범들에 대한 재판기록, 3·1독립운동 목격자들의 진술을 기록한 일지,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사상자 통계, 경제적 착취에 관한 통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 당시의 일본지배 상황을 그 어떤 영화나 기록물을 보았을 때보다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著者는 또한 당시 「차이나 프레스」의 특파원 나다니엘 페퍼가 쓴 기사를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日帝에 대한 증오를 대신 전하려 하고 있다. 일제의 억압과 그에 대한 우리 민족의 증오, 독립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서투른 번역이 오히려 글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 그중 일부를 필자의 번역과 함께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There is now in the heart of Korea, of every Korean, a bitterness against Japan that cannot be expunged at least for a generation. … And it is a matter of instinct now with the Koreans. They do not reason; they do not claim to be logical. Their bitterness is implanted in them; it is in the blood of their veins. … They want independence, and only independence. They may not win it, may not win it for decades or ever, but they will be satisfied with nothing less. And they will struggle, openly or under cover, to the point, I believe, of racial suicide. … It is matter of hatred, not reason." (이제 한국의 그리고 모든 한국인의 가슴에는 최소한 한 세대 동안에는 지워질 수 없는 일본에 대한 증오가 있다. … 이제 한국인에게 있어서 증오는 본능적이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증오는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고 그들의 혈관을 흐르는 핏속을 채우고 있다. … 그들은 독립을, 오직 독립만을 원한다. 그들은 독립을 쟁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수십년 동안 어쩌면 영원히 독

립을 쟁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덜한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또는 드러나지 않게 민족적 멸종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투쟁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 독립을 위한 투쟁은 논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적 증오의 문제인 것이다.)

이 책을 부분적으로나마 읽으면서 그리고 발전경제학 시간에 식민지배에 대한 토론을 거치면서 나는 우리의 과거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연구가 너무 국내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이 책의 발견이 그렇다. 고등학교 때까지 국사를 배웠고, 고시준비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에도 국사책을 읽었었는데 해외독립운동 부분에서 이 책의 이름도 저자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비록 적은 수일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책들을 찾아내고 영문 그대로 재발간함은 물론 번역본을 발간하여 후세들에게 읽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분노와 저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아무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도 정의는 승리한다는 신념과 희망만을 갖고 투쟁한 조상들이 있었다는 자부심이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한 나 같은 사람만의 것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과거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연구가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 자체에 치중되어 있는 연구영역을 확대하여 일본과 영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영국의 식민지배와 일본의 식민지배를 동일시한다. 이것은 물론 비교연구 기록이 전무한 상태에서 빚어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수업시간에 식민지배와 경제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알게 된 의외의 반응은 많은 외국학생들이 우리의 경제발전 요인의 하나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거론한다는 것이다. 식민지배를 통하여 근대적 경제제도(토지제도 등)가 도입되었고, 산업기반시설과 근대적 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당시 농업기반(저수지, 新종자 등)의 확충 등으로 미곡생산이 늘었으나 한국인은 그 혜택의 수혜자가 아니었다는 점, 근대적 교육시설 특히 고등교육기관은 일제가 아닌 주로 선교단체와 한국인에 의하여 설립·운영되었다는 점, 분단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남한에 남겨진 물적 자본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이 한국에 근대적 경제제도를 도입했다는 것과 대만의 일제 식민지배하에서의 농업발전 사례 등을 들며 경제발전에 대한 日帝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과제물로 제출할 짧은 레포트를 쓰면서 그 동안의 우리의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직접 당사자인 韓日 관계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영국의 식민지배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비교연구, 같은 일본의 식민지배 국가 중에서도 대만 등 타국가와 한국과의 비교연구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영국의 식민지배와 일본의 식민지배를 동일시하고 인도와 한국의 식민경험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세계의 곳곳에 식민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총독 등 소수 지배계층 외에는 직접 영국인을 파견하기 어려웠으므로 토착민을 교육시켜 국가 관리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독립 후에 우리가 겪었던 극심한 행정가 또는 경영인력의 부족현상을 피할 수 있었으며, 국가경제발전의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착취를 하였을 뿐 우리의 잠재력 향상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외국인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일제와 영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비교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연구 없이 일본 식민지배가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일본인과 일부 외국인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거의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일부 일본 각료들의 망언에 대하여 분개하고 궐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부 또는 민간 학술·문화재단이 주체가 되어 식민지배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이를 연구하는 국내외학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